尤史 金奎植의 教育 生涯와 韓國語學 研究*

張 會 見 **

- 1. 서론
- 2. 중국에서의 김규식의 교육활동
- 3. 김규식의 한국어학 연구—『大韓文法』과 『朝鮮文法』의 대조
- 4. 결론

초록: 김규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운동가이다. 그는 훌륭한 언어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1897년에서 1904년 사이에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중국어,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많은 외국어에 능통했다. 1904년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1908년에는 한국문법에 대해서 『大韓文法』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나중에 정치적인 원인으로 『朝鮮文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1912년에 다시 간행하였다. 1913년부터 1945년 사이에 그는 중국에 망명하여 四川大學에서 영문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이 글에서는 김규식이 중국에 있는 동안 그가 진행했던 교육활동 및 중국에서 출판한 논저들을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발견한 김규식의 『英譯婉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1943)과 『實用英文作文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1949)의 이미지 자료를 소개하였고,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이 두 책의 서지사항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1908년에 출간한 『大韓文法』과 1912년에 출간한 『朝鮮文法』의 내용을 대조하여 후자에 와서 수정된 부분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자 김규식 自意에 의하여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기술을 보완한 부분도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補缺詞'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補缺詞' 또한

^{*}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희 선생님과 구슬아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을 올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不完動詞'와 '完全動詞'의 개념은 그가 의미적으로 한국어의 문법을 관찰하기 시작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金奎植、『英譯婉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實用英文作文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大韓文法』,『朝鮮文法』

1. 서론

尤史 金奎植(1881~1950)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운동가로 기억되어 왔다. 그는 한국·유럽·중국 등지에서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 있다.1) 한편 김규식은 훌륭한 언어학자이다. 그는 일찍이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전문적인 언어학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식은 개화기에 한국어를 연구한 다른 학자들보다 더 체계적인 서양 언어학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한국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존 연구에서 김규식의 생애에 대해 논할 때에는, 그의 언어학적 연구 성과나 교육활동보다는 그가 참여한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언어학자·교육가로서의 김규식의 생애를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에 망명해 있었던 1913년에서 1945년 사이의 30억 년간 그가 진행했던 교육활동과 중국에서 출판한 논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김규식의 한국어 연구에 대해 다룬 논의로는 김민수, 한영목, 최낙복, 김영욱, 최경봉 등이 있다.²⁾ 김민수(1981)에서는 김규식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발표한

¹⁾ 李庭植, 1974 『金奎植의 生涯』, 新丘文化社: 李炫熙, 2001 「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 『강원문화사연구』 6,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26면: 윤경로, 2011 「김규식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항일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39-77면.

²⁾ 김민수, 1977 金奎植『大韓文法』의 研究」, 『高麗大 人文論集』 22, 1-31면: 김민수, 1981 김 규식의 "The Korean Language"에 대하여」, 『어문논집』 22, 안암어문학회, 7-22면: 한영

영어 논문「The Korean Language」(1900)을 소개하였고, 나머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1908년에 출판한『大韓文法』에 대한 논의들이다. 김규식의 논저로는『大韓文法』 외에도 1912년에 출판한『朝鮮文法』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표현만 수정한 것이라『大韓文法』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수정한 표현 외에『大韓文法』의 문법적인 내용을 수정하여『朝鮮文法』에 실은 부분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大韓文法』(1908)과『朝鮮文法』(1912)의 내용을 대조하여 수정된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정리하기로 한다. 이를 살핌으로써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에서의 김규식의 교육활동

김규식은 1881년 1월 29일에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났고 1886년에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元杜 尤)에게 입양되었다. 그리고 1897년부터 1903년까지 그는 미국 르녹대학(Roanoke College)에서 영어와 역사를 전공하였다. 이어서 1903년부터 1904년까지 프린스턴 대학원(Princeton Academy) 영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그는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지원하는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을 거절하고 한국에 귀국하였다.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언더우드 목사의 비서, YMCA학교 교사, 徽新學校 교감으로 있었고, 1910년부터 1912년까지는 연희전문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12년 105인 사건 이후에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

목, 1991「김규식 문법에서의 통사론 연구」, 『語文研究』 22, 어문연구학회, 9-28면; 최낙복, 1996「김규식 문법의 품사 설정」, 『동남어문논집』 6, 동남어문학회, 187-208면; 김영욱, 2001「서평: 김규식(1908)」, 『형태론』 3-1, 165-179면; 최낙복, 2002 김규식 문법의 '문장법'연구」, 『국어국문학』 2,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3면; 최경봉, 2004「국어학: 김규식『대한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5-28면.

로 망명하여 1913년 11월 상해에 도착하였다. 1913년부터 1945년까지 30여 년 동안 그는 중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계속 참여하였다. 그가 했던 교육활동을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지역	저술 및 교육활동 내용
1913년 11월	上海	上海 도착
1913년 12월 17일		박달학원 설립, 영어 교수
1921년 4월		南華學院 설립
1922년~1927년		私立 復旦大學 영문과 교수 私立 惠靈英文專科學校 창립
1929년~1933년	天津	國立 北洋大學 영어 교수
1933년 여름~1935년	南京	中央政治學院 영어 교수
1935년 9월~1945년 11월	四川	成都 ³⁾ 國立 四川大學 ⁴⁾ 外文系 ・ 직급: 外文系 학과장 ・ 장의 과목: 高等英語文法과 修辭學, 實用英語, 十六世紀英國文學, Shakespeare戲劇。 ・ 출판물: 1943년 『英譯婉容詞』, 成都英語週刊社 출판, 吳芳吉 著, 金 尤史 譯, 24쪽. 1945년 英文敘事詩集『揚子幽景』. ⁵⁾ 1949年『實用英文作文法』, 中華書局, 210쪽.
1939년 12월~?		樂山 國立 武漢大學 겸임 교수

〈표 1〉 중국에서의 김규식의 교육활동

³⁾ 나중에 峨眉市로 이전했다.

⁴⁾ 선행연구에서 김규식이 근무했던 國立 四川大學이 '泗川大學'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김민수, 1977, 앞의 논문). 그러나 중국에서 '泗'로 命名되는 지명은 하나뿐이고 그것은 山東省에 있다. (『現代漢語詞典』1235: [泗河] 水名, 在中國山東省.) 김규식이 근무했던 학교가 成都市(후에 峨眉市로 이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泗川大學'은 '四川大學'을 잘못쓴 것임을 알 수 있다.

⁵⁾ 이 시집에서 김규식은 峨眉山、長江三峽、上海、杭州、蘇州、鎭江、揚州、長沙、重慶、成都 등의 역사, 문화 유적, 자연 경치, 민족 풍속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그가 10년 동안 근무했던 國立 四川大學과 학우들을 찬양했다. 1992년에 우사연구회가 이 시집을 복원하여 재출간하였다.

《표 1〉을 보면, 김규식은 중국에 도착한 후에 上海, 天津, 南京 등 중국 동남 지역의 각 대학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1935년부터 중국 서남쪽에 위치하는 四川省에 정착하여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國立 四川大學 外文系에서 근무했던 것을 알수 있다. 이 중에서 1935년~1945년, 그가 四川大學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한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교육가로서의 김규식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규식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시기에 '金尤史'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6〕 1935년부터 1945년 사이에 國立四川大學 外文系의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金尤史'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가 김규식이라는 것은 四川大學 檔案館에서 敎史 자료를 정리하면서 밝혀졌다. 7〕

四川大學 檔案館의 기록에 의하면 김규식은 '高等英語文法과 修辭學', '實用英語' 등 언어학 과목과 '十六世紀英國文學', 'Shakespeare戲劇' 등 영국문학 과목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가 '金尤史'라는 이름으로 남긴 저서로는 『英譯婉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1943), 『揚子幽景(The Lure of the Yangtze)』(1945), 『實用英文作文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1949) 등이 있다.

이 중에 『揚子幽景』(1945)은 1992년에 우사연구회에 의하여 복원되어 한국에서 재출간되었다. 나머지 두 권의 책은 선행연구에서 간단히 제목만 언급되어 있고 자세한 서지 사항의 소개는 없었다. 중국에서 이 두 책의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⁸⁾ 먼저 소개할 것은 1943년 5월에 재판된 『英譯婉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이다.

⁶⁾ 김규식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본명보다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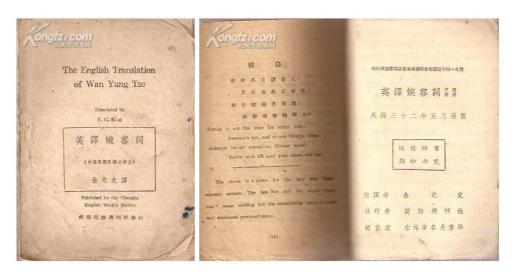
^{(1) 1911}년부터 상하이에 있는 동안 '金成(城)'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2)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갔을 때 '金仲文'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권으로 출국하였다.

^{(3) 1935}년~1945년 四川大學 外文系에서 '金尤史('尤史'는 김규식의 號)'라는 이름으로 교 직 생활을 하였다. 주변의 친구들은 그를 '金博士'라고 불렀다고 한다.

⁷⁾ 陳光夏·朴根亨, 2005 抗戰時期川大外文系主任金尤史教授」, 四川大學檔案館.

⁸⁾ 이미지 자료 출처: 孔夫子旧書网(www.kongf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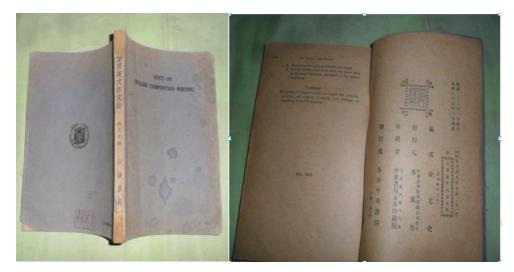
〈그림 1〉 『英譯婉容詞』(1943)의 앞·뒤 표지

『婉容詞』는 중국 현대시인 吳芳吉(1896~1932)이 1918년에 발표한 敍事詩이다. 이 시는 남자 주인공이 유럽·미국에 몇 년 동안 유학을 다녀와서 출국하기 전에 결혼한 아내(이름은 '婉容')를 버리고, 이로 인해 아내 婉容이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婉容詞』는 발표된 뒤에 그 당시의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으며 중국 현대 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김규식은 『婉容詞』를 영어로 번역하고 成都 英語週刊社에서 『英譯婉容詞』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그림 1〉은 『英譯婉容詞』 2판의 앞・뒤 표지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의 번역자의 이름은 '金尤史'이고 영어로는 'Y. C. Kim'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의 출판시기에 대해서는 '民國三十二年五月 再版'이라고 적혀 있다. '民國三十二年' 즉 1943년에 이 책이 재판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판의 출판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⁹⁾

^{9) 『}英譯婉容詞』 초판의 출판 시기는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민수에 의하면 『英譯婉容詞』는 1943년 3월에 출판된 것이다. 그는 김규식이 쓴 책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김민수, 1977, 앞의 논문): 1943년(昭和18年) 3월에 『英譯婉

다음으로 初版의 『實用英文作文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의 이 미지 자료를 보겠다.



〈그림 2〉『實用英文作文法』(1949)의 표지

〈그림 2〉의 『實用英文作文法』 표지에는 '民國三十八年二月'에 中華書局에서 초 판을 간행했다고 적혀 있다. '民國三十八年'은 1949년인데, 김규식은 1945년 11월쯤에 중국을 떠났으므로 이때는 김규식은 이미 중국을 떠난 뒤이다. 김규식이 國立四川大學에서 유사한 이름의 '實用英語'라는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四川大學 檔案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實用英文作文法』은 그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나중에 출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¹⁰⁾

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 1940년(昭和 15)에『엘리자베드時代의 演劇入門(Introduction to Elizabethan Drama)』, 1944년(昭和 19)에『實用英文作法 (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 그리고 1945년에『實用英文(Practical English)』 등을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으나 모든 출판년 도는 '昭和紀年'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찾은 이미지 자료들에서는 모두 '民國 紀年'이 사용되어 있다.

¹⁰⁾ 김민수는 『實用英文作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이 1944년(昭和19년)에

3. 김규식의 한국어학 연구-『大韓文法』과 『朝鮮文法』의 대조

김규식은 체계적으로 서양 언어학을 공부했었다. 그는 1897년 6월부터 1903년 6월까지 르녹대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전공하고, 1904년에는 프린스턴대학원 영문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개화기의 문법학자보다 훨씬 더체계적인 언어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은 그가 한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김규식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인도어까지 구사할 수있게 되었다고 한다.¹¹⁾ 이러한 다양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 그는 개화기의 다른 문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국어를 연구할 수 있었다. 김규식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四川省 五通市에 거주하는 동안에 사귀었던 친구 화가 吳成之의 기술에 따르면¹²⁾ 김규식은 중국어와 중국 고전 문학에 아주 능통한 '中國通'이었다고 한다.

김규식이 남긴 한국어학 관련 저서는 「The Korean Language」(1900), 『大韓文法』(1908), 그리고 『朝鮮文法』(1912) 세 가지다. 이 중에서 「The Korean Language」(1900)는 그가 미국 르녹대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학부 3학년의 학생 신분으로 학보에 발표한 논설이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어를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등과 대조하면서 한국어의 문자 구조와 문법 구조를 소개하였다. [13] 『大韓文法』(1908)과 『朝鮮文法』(1912)은 그가 한국에 귀국한 뒤에 쓴 한국어 문법서

출판된 것으로 기술한 바가 있다(김민수, 위의 논문). 〈그림 2〉의 자료에서는 이 책은 '民國三十八年二月 初版'로 적혀 있어서 1949년 2월에 이 책이 초판이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¹¹⁾ 李炫熙, 2001 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 『강원문화사연구』 6,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02면.

¹²⁾ 百度百科-吳成之 참조.

¹³⁾ The Korean Language」(1900)에 대해서는 김민수가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김민수, 1981, 앞의 논문.

이다.

『大韓文法』은 1908년에 출간하였고, 그 뒤에 김규식은 1912년에 『朝鮮文法』이라는 제목으로 『大韓文法』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새로운 문법책을 냈다. 책 제목이 '大韓文法'에서 '朝鮮文法'으로 수정된 것처럼 『朝鮮文法』에서 수정된 내용 중에는 韓日合邦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쳐진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大韓'은 '朝鮮'으로, '國語', '大韓語'는 '朝鮮語'로 고쳐졌다. '隆熙二年'과 같은 표현은 아예 삭제되었다.

『大韓文法』이 『朝鮮文法』으로 바뀌면서 저자가 자의적으로 책 내용을 수정한 것도 있는데 대체로 '추가', '삭제', '바꿔 쓰기' 등의 변화가 보인다. 이중의 일부는 『大韓文法』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빠트린 내용을 보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김규식이 자신의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인식을 보완·수정하여 반영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우선『大韓文法』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빠트린 내용을 보완한 것들을 보자.¹⁴⁾

(1) 國語歷代

(1)'朝鮮語歷代

[전략] 南含 탐일(探逸)印度東海岸及錫蘭島土民의 言語 델누구印度南方言語와 外他印度南部之方語와 濠洲와 其近方島嶼에 諸土語를 總稱홈이니라 <u>然則 아리아와 셈 兩族의 言語를 除き 外에는 統稱 투라니아言語라 한는</u>다 朝鮮語도 亦 其中에 祭入한영노니라(『朝鮮文法』서문1)

(2) 字軆

字軆라 홈은 單純호 聲音을 表明한 것의 總稱이라(『大韓文法』4)

(2)' 字軆

字軆」라 홈은 單純호 聲音을 表明한 것의 總稱이니 <u>或 子母라 稱호느니라</u>(『朝鮮文法』1)

¹⁴⁾ 인용 내용의 띄어쓰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15) 『}大韓文法』와 『朝鮮文法』에는 군데군데 협주가 보이는데,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할 때 협주 내용은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표시한다.

(3) 代名詞

代名詞도 名詞와 갓치 數와 格을 區別호야 換易과 語尾變化가 有호니 其例를 示컨디

나 내(單數) 우리 우리들(複數) 너 네(單數) 너희 너희들(複數) 내가 나는(主格) 나물(目的格) 나의(所有格) 餘皆做此

(『大韓文法』15)

(3)′ 代名詞

代名詞도 名詞와 굿치 <u>數와 格과 性을 區別호야</u> 換易과 語尾変化가 有호니라 其例를 示컨디

나 내(單數) 우리 우리들(複數) 너 네(單數) 너희 너희들(複數) 내가 나는(主格) 나를(目的格) 나의(所有格) 놈(男性) 년(女性) 餘皆做此

(『朝鮮文法』11)

(4) 一詞句를 形容詞로 用홀 境遇가 有호니 此를 曰 形容詞句라 호닉니 其例를 示 컨디 그 사람이 반다시 가야 홀 길이라」호면「그 사람이 반다시 가야 홀」이 名詞 길」을 描言호는 故로 形容詞資格을 成홀 것이오(『大韓文法』28)

(4)′△ 形容詞의 代用

一個詞句를 形容詞로 用홀 境遇가 有す니 此를 曰 形容詞句」 すヒ니 其例를 示 컨디 그 사람이 반도시 가야 홀 길이라」 す면 詞句 그 사람이 반도시 가야 홀」 이 名詞 길」을 描言すと 故로 形容詞資(格¹⁶⁾)을 成홀 것이오(『朝鮮文法』 22-23)

- $(1)\sim(4)$ 에서 밑줄 친 부분은 『大韓文法』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朝鮮文法』에서 추가된 것이다.
- (1)은 세계 언어의 語族에 대한 설명인데, 『朝鮮文法』에서는 한국어가 '투라니아言語'에 속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는 字母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데 『大韓文法』에서는 이를 '字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朝鮮文法』에서는 '字軆' 외에 '子母'라는 용어도 제시하였다. (3)은 대명사에 대한 논의인데, 『大韓文法』에서는 대명사가 數와 格에 따라 형태 변화가 있다고 하였고, 『朝鮮文法』에서

¹⁶⁾ 원문에서는 '形容詞資을 成홀 것이오'로 되어 있는데 '格'자가 실수로 빠진 것으로 판단해서 인용문에서는 '形容詞資(格)을 成홀 것이오'로 표시한 것이다.

는 대명사가 數와 格외에 性에 따라서도 형태 변화가 있다고 수정하였다. 性에 따라 형태 변화가 보이는 예로 남성에게 사용하는 '놈'과 여성에게 사용하는 '년'을 예로 제시하였다. (1)~(3)은 『大韓文法』에 있었던 내용에 추가적 설명을 보완한 것이고 (4)는 『大韓文法』에서 형용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중 제목을 빠뜨린 것을 보완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¹⁷⁾ 『大韓文法』보다는 『朝鮮文法』에서 '補缺詞'라는 개념이 적극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두 책에서 '補缺詞'에 관련한 내용을 비교해 보자.

(5) 目的語를 得홈

說明語가 目的을 用호야 修飾을 得홀 時에는 單純說明語는 他動詞資格을 其行動의 目的地를 顯호는 名詞를 要호는니라 其例를 示컨되

野蠻은¹⁸⁾ 鬼神을 爲ㅎ느니라

愚者と 時期를 失きしい라

題目語 目的語 說明語

題目語 目的語 說明語

說明部

說明部

(『大韓文法』92)

(5)' 補缺詞를 得홈

說明語가 目的語를 用호야 修飾을 得홀 時에는 單純說明語는 他動詞資格으로 其行動의 目的地를 顯호는 名詞의 補缺詞를 要호며 說明形容詞나 說明名詞로 修飾을 得홀 時에는 單純說明詞가 不完自動詞資格으로 說明形容詞나 說明名詞 의 補缺詞를 要호느니라 其例를 示컨되

野蠻은 鬼神을 爲すい口라

其人の 學員 이라

題目語 目的補缺 說明語

題目語 説明補缺 説明語

說明部

說明部

(『朝鮮文法』74)

¹⁷⁾ 김규식의 '補缺詞' 개념에 대해서는 한영목이 다룬 바가 있다. 한영목은 '김규식(1912:74) 에서는 목적어를 보결사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설명보결사에 대한 기술을 고려한 듯하다.'라고 지적하면서『朝鮮文法』에서 補缺詞에 대해 추가한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한영목, 앞의 논문.

¹⁸⁾ 인용한 문헌 원문에 있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한다.

(5)'에서 실선으로 밑줄 친 부분은 『朝鮮文法』에서 새로 수정·추가한 내용이다. 우선 '目的語'라는 표현을 '補缺詞', 혹은 '目的補缺'로 바꿔 적은 부분이 눈에 띄고, 또한 '補缺詞'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補缺詞'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不完自動詞와 같이 쓰이는 설명명사나 설명 형용사'를 가리킨 것을 알 수 있다. 補缺詞 개념의 도입에 따라 『朝鮮文法』에서 동사와 명사, 그리고 대명사에 대한 설명도 추가한 내용이 있다. 우선 동사에 대한 추가 내용을 보자.

(6) 他動詞

他動詞라 홈은 其發表되는 動作이 題目語에 止치 아니호고 他物에 施及홈을 云홈이니 [중략] 每樣題目과 動作과 目的이 有호야 其說明部를 其動作의 目的으로 完成되느니라(『大韓文法』18)

(6)' 他動詞

他動詞」라 홈은 其發表되는 動作이 題目語에 止치 아니호고 他物에 施及홈을 云홈이니 [중략] 每樣題目과 動作과 目的이 有호여야 其說明部가 其動作의 目的으로 完成되는니라

<u>然則 他動詞는 恒常 目的語</u>를 得*호* 後에야 完全*호* 說明을 發表*支* と 故로 不完動詞」라 *支* こしは(『朝鮮文法』14)

(7) 自動詞

自動詞라 홈은 題目語의 動作이 他目的에 施及되지 아니호고 自己行動만 發表 호는 것을 云홈이니 自動詞를 用호는 境遇에는 目的語가 無호야도 其句語가 完成되는니라 假令 [중략] 열민가 익엇다」(『大韓文法』19)

(7)' 自動詞

自動詞」라 홈은 題目語의 動作이 他目的語에 施及되지 아니학고 自己行動만 發表학는 것을 云홈이니 自動詞를 用학는 境遇에는 目的語가 無학여도 其句語 가 完成되는니라 假令 [중략]「열미가 닉엇다」

有或 自動詞는 完全動詞」。 有或 自動詞는 不完動詞」이니 不完自動詞」는 説明形容詞」나 説明名詞」로 補缺客을 要すいし라 其例를 示わら

其馬가 大き다」(説明形容詞) 彼人이 我의 友라」(説明名詞)

説明形容詞는 動詞와 幷合すぐ 形動詞」資格을 發表되는 境遇가 多す니라(『朝鮮文法』15)

(5)~(7)에서 밑줄 친 부분이 『朝鮮文法』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朝鮮文法』에서 새로 도입된 補缺詞의 개념과 대응하여 '完全動詞'와 '不完動詞'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가 완전한지에 따라 '完全動詞'와 '不完動詞'를 구별한다.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不完動詞'이고, 자동사에는 '不完動詞'도 있고 '完全動詞'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不完自動詞'가 '說明形容詞'나 '說明名詞'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추가 내용이다.

(8) 名詞의 作用

名詞의 元作用은 以上에 論호 바 句語에 題目語와 目的語로 用 호는 것 名詞가 또한 說明語 로 完成 호 는니 假令 金書房이 巡査니라」 호면 명사「巡査」 가 題目語「金書房」이 如何타 호는 說明語 로 完成 호고 名詞 巡査」 업시 但 金 書房이라」 호면 說明語「니라」 가 題目語「金書房」을 何이라 호는 說明이 完成 치 못 호니라(『大韓文法』 12-13)

(8)' 名詞의 作用

名詞의 元作用은 以上에 論호 바 句語에 題目語와 目的語로 用す는 것이니라 名詞가 또한 說明語를 完成す는니 假令 金書房이 巡查니라」 호면 명사「巡查」가 題目語「金書房이」如何타す는 說明語를 完成す고 名詞 巡查」업시 但 金書房이니라」 호면 說明語 니라」가 題目語 金書房」을 何이라 す는 說明이 完成 치 못하니라 然則 名詞가 不完動詞」를 工條로 補缺す는다(일)은 他動詞에 目的語가 되여 補缺す는 것이니 此를 曰 目的補缺詞」라 학며(이)는 不完自動詞」로 說明홀 時에「說明主格名詞」가 다여 補缺す는 것이니 此를 曰 說明補缺詞」라 하는니라 假令

- (일) 學員이 册을 持來で영소」で면 目的格名詞 册을」이 他動詞 持來で영소」 의 目的語가 되여 其 說明에 不完全함을 補缺で며
- (이)「孔子는 聖賢이라」 한면 說明主格名詞 聖賢」이 自動詞「이라」의 不完全度 說明을 補缺한 느니라

名詞가 또한 某名詞나 代名詞로 發表된 바를 더욱 明確히 描說한거나 定言한기 爲한다 「同格」으로 發表되는니 其例를 示컨다

新羅文章主格特別名詞「薛聰」과 同格 薛聰이 句讀와 吏讀를 製さ다」

(9) 代名詞

[전략]「金書房」과 其馬」가 皆 先行詞라 代名詞도 名詞와 갓치 數와 格을 區 別호야 換易과 語尾變化가 有호니 其例를 示킨다(『大韓文法』15)

(9)′ 代名詞

- (8)'은 '名詞의 作用'에 대한 설명인데,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어 '目的補 缺詞'가 될 수도 있고, 不完自動詞와 공기하여 '說明補缺詞'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 다. (9)'에서는 대명사도 명사와 같이 '目的補缺詞'나 '說明補缺詞'가 될 자격이 있 다고 하였다.
- (5)~(9)에서 제시한 '補缺詞'와 '補缺詞'에 관련하여 동사, 명사, 대명사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동사는 홀로 완전한 서술의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미성분이 채워져야 완전한 說明部가 될 수 있다.¹⁹⁾ 이러한 동사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補缺詞'라고 한 것이다.²⁰⁾ 즉, '補缺詞'는 동사가 홀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는지를 주목하여 제기한 개념이다. 둘째, 補缺詞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들은 '不完動詞'라고하고 그렇지 않은 동사는 '完全動詞'라고 하였다. 타동사는 모두 목적어를 요구하

¹⁹⁾ 김규식의 문법 체계에서는 '句語'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한국어 문법의 '문장'의 개념을 가리킨다. 또한 '句語'은 '題目語'와 '說明語(說明部)'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현대문법의 주어부와 서술부에 대응되는 것이고 최경봉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최경봉, 앞의 논문, 19면.

²⁰⁾ 익명 심사 위원 선생님 중 한 분께서 '補缺詞'는 보충어(complement)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조언을 해주셨다. 영어 전통 문법의 용어인 보어(complement)는 주어 목적어 이외에 서술을 완전하게 해주는 모든 요소로서 명사, 형용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이선웅 2012:332). complement와 '補缺詞'는 모두 '서술을 완전하게 해주는 필수 성분'을 가리키는 측면에서는 두 개념이 겸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을 complement로 보는 것과 달리, 김규식의 '補缺詞'는 목적어도 포함되어 있다.

기 때문에 타동사는 모두 '不完動詞'이다. 자동사는 '不完動詞'도 있고 '完全動詞'도 있다. 셋째, 補缺詞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밝혔는데 하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되는 '目的補缺詞'이고 하나는 不完自動詞의 說明主格名詞가 되는 '說明補缺詞'이다. 넷째, 명사와 대명사가 모두 '目的補缺詞'를 할 수도 있고 '說明補缺詞'를 할 수도 있다.

'目的語-補缺詞', '他動詞-不完動詞', '自動詞-不完動詞'完全動詞'의 대립은 통사론 적 개념과 의미론적 개념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目的語', '自動詞/他動詞는 통사론 차원의 개념이고, 의미가 완전한지에 따라 구별된 '不完動詞와 '完全動詞', 그리고 不完動詞의 의미를 채워주는 '補缺詞'는 현대 언어학에서의 동사와 동사의 필수적인 논항 개념과 통하는 면이 있다. 물론 김규식이 『大韓文法』과『朝鮮文法』에서 '文法을 究研 호는 階梯가 有三호니 第一에 字體와 其聲音及 韻 第二에 詞字學 第三에 文章論으로 區別호야 稽考홀지니라(『大韓文法』 4, 『朝鮮文法』 3)'라고하며, 한국어의 문법을 '字體와 其聲音及 韻學', '詞字學', '文章論', 이렇게 세 가지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구분이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朝鮮文法』에서 새로 제기된 '補缺詞', '不完動詞/完全動詞' 등의 개념은, 그가 의미적으로 한국어의 문법을 관찰하기 시작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주 초기의 관찰들이기 때문에 『朝鮮文法』에서는 통사적 개념과 의미적 개념의 관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朝鮮文法』에서 큰 폭으로 수정된 '補缺詞'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저자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分意助動詞의 類型'을 다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바꾸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10) 分意助動詞의 類型

가려 호오(志願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갈 만호오「가 쉬 잇쇼」(能力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갈 듯호오(假定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보러 가오(目的으로 分開 한 助動詞) 보게(許可로 分開 한 助動詞)(『大韓文法』22)

(10)' 分意助動詞의 類型

가려 호오(志願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갈 만호오「갈 수 있쇼」(能力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보러 가오(目的으로 分開호는 助動詞) 보게(許可로 分開호는 助動詞)(『朝鮮文法』17)

밑줄 친 '갈 듯호오(假定으로 分開호는 助動詞)'가 『朝鮮文法』에서는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수정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형을 삭제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大韓文法』에서 사용된 고유어가 『朝鮮文法』에서 한자어로 고쳐진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보자.

- (11) 고유어를 한자어로 수정한 예
 - a. 아희가 기를 따린다(『大韓文法』18)
 - a'. 兒孩가 狗를 打き다(『朝鮮文法』14)
 - b. 개가 다라는다(『大韓文法』19)
 - b'. 犬이 走き다(『朝鮮文法』15)
 - c. 로형 말삼에 디호야 내가 셜명호겟쇼(『大韓文法』39)
 - c'. 로형 말숨에 對호야 내가 셜명호겟소(『朝鮮文法』33)
 - d. 뜨리다(打)(主動調), 마젓다(被打)(被動調)(『大韓文法』73)
 - d'. 打(뜨리다)(主動調), 被打(마젓다)(被動調)(『朝鮮文法』61)

(11a~c)에서 '아희'를 '兒孩'로, '디하야'를 '對호야'로 수정한 것처럼 한자어를 한글 표기에서 한자 표기로 수정한 예도 있고, '기'를 '狗'로, '짜린다'를 '打호다'로, '개'를 '犬'으로 수정한 것처럼 『大韓文法』에서 고유어로 표현했던 것을 『朝鮮文法』에서는 한자 표기의 한자어로 수정한 예도 많이 찾을 수 있다. 또한 (11d)의 예를

보면, 『大韓文法』에서는 '咚리다(打)(主動調)'와 같이 '한글이 主, 한자가 從'이 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朝鮮文法』에서는 이를 '한자가 主, 한글이 從'인 '打(咚리다)(主動調)'식으로 수정하였다.

4. 결론

지금까지 언어학자로서의 김규식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한국어학 연구를 살펴보았다. 논의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규식이 중국에서 했던 교육활동을 정리하였다.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金尤史'라는 이름으로 北洋大學, 中央政治學院, 四川大學, 武漢大學 등에서 몇 십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였다.

김규식이 중국에서 남긴 저서로는 『英譯婉容詞(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1943), 『揚子幽景(The Lure of the Yangtze)』(1945), 『實用英文作文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1949) 등이 있다. 해당 책의 이미지 자료를 통해 출판년도 및 출판사 등의 서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1908년에 출간한 『大韓文法』과 1912년에 출간한 『朝鮮文法』의 내용을 대조하여 후자에 와서 수정된 부분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자 김규식 自意에 의하여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기술을 보완한 부분도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補缺詞'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補缺詞'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不完動詞'와 '完全動詞'의 개념은 그가 의미적으로 한국어의 문법을 관찰하기 시작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11, 9), 심사일(2016, 11, 29), 게재확정일(2016, 12, 4)

참고문헌

〈한국어 참고문헌〉

金奎植, 1908『大韓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1부 5책), 탑출판사

金奎植. 1912『朝鮮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1부 5책). 탑출판사

김민수, 1977「金奎植『大韓文法』의 研究」、『高麗大 人文論集』22, 1-31면

김민수, 1981 「김규식의 "The Korean Language"에 대하여」, 『어문논집』 22, 안암어 문학회, 7-22면

김영욱, 2001 「서평: 김규식(1908)」, 『형태론』 3-1, 165-179면

김영황, 2005 근대적 국어문법건설과 김규식의 문법리론 . 『중국조선어문』 2. 17-24면

우사연구회, 2007 『우사 김규식 통일·독립의 길 가다 1』, 논형

윤경로, 2011 「김규식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항일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39-77면

이선웅, 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옥연. 1991 「김규식 대한문법의 후사고」, 『語文論集』1, 17-30면

李庭植, 1974『金奎植의 生涯』, 新丘文化社

李炫熙, 2001「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강원문화사연구』6,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26면

최경봉, 2004 『국어학: 김규식 『대한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5-28면

최낙복, 1996 김규식 문법의 품사 설정 , 『동남어문논집』6, 동남어문학회, 187-208면

최낙복, 2002 「김규식 문법의 '문장법'연구」, 『국어국문학』 2,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3면

한영목, 1991 김규식 문법에서의 통사론 연구 , 『語文研究』22, 어문연구학회, 9-28면위키백과-김규식(http://ko.wikipedia.org)

〈중국어 참고문헌〉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2/1960『現代漢語詞典(第六版)』,商務印書館. 陳光夏・朴根亨,2005「抗戰時期川大外文系主任金尤史教授」,四川大學檔案館.

四川大學檔案館(http://archives.scu.edu.cn)

百度百科-吳成之(http://baike.baidu.com)

Abstract

Kim Gyu-Sik(金奎植)'s Life in China and His Korean Language Research

Zhang Huijian

Kim Gyu-Sik(金奎植)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hters for Korean independence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He is also known as an excellent linguist. He majored in linguistic in America from 1897 to 1904 and he can speak many kinds of foreign languages such as Chinese, English, Latin, French, German and Russian, etc. He came back to Korea in 1904 and wrote a Korean grammar book named 『Dae han mun peop(大韓文法)』 in 1908. This book was republished in 1912 with a new name of 『Jo seon mun peop(朝鮮文法)』 due to some political reasons. From 1913 to 1945 he lived in China as an English professor in Sichuan University.

This paper aimed to organize his academic activities and books when *Kim Gyu-Sik*(金奎植) stayed in China. As the result, we introduced the image materials about his works "*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英譯婉容詞)』(1943) and "*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實用英文作文法)』(1949). From these image materials we can identify the published year and other bibliographical data of these books.

In this paper, We also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Dae han mun peop(大韓文法)』 (1908) and 『Jo seon mun peop(朝鮮文法)』(1912) and show the modifications in the latter. Except for the changes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Jo seon mun peop(朝鮮文法)』 is that Kim Gyu-Sik(金奎植) added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ncepts of 'uncompleted verb(不完動詞)', 'completed verb(完全動詞)' and 'po kyeol sa (補缺詞)'.

Key words: Kim Gyu-Sik(金奎植), 『The English Translation of Wan Yung Tze(英譯婉容詞)』, 『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實用英文作文法)』, 『Dae han mun peop(大韓文法)』, 『Jo seon mun peop(朝鮮文法)』